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태양계 탐사

1958년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이 지구궤도를 돈 이후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며 천체를 관측하고 있다. 또 외계로 나가 행성이나 위성들의 현저한 특성을 계속하기도 한다. 46억년의 긴 지구 역사에 비하면 이러한 과학문명의 발전은 극히 참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셈이지만, 이로부터 인간의 인식 세계는 더 이상 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현저한 특성을 통해 확장되며 정밀해지고 있다.

오늘날 과학의 실험실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지상의 닫힌 실험실을 벗어나 열린 우주의 실험실을 찾고 있으며, 자연 그 자체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에서부터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탐사해왔다. 지상 관측은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특정한 파장의 빛이 차단되고 또 빛이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빛이 약해지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현저한 특성을 지닌 지구대기층의 제약이 없었던 새로운 많은 정보를 직접 얻어오고 있다.

공기가 없는 수성 표면에는 수많은

은 운석 충돌구멍이 있다. 이들은 40억 년 전에 작은 미행성들의 충돌로 생겼으며, 공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금성에서는 짙은 구름 때문에 태양이나 별을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계속 된다. 금성의 높은 대기압 때문에 지상에서 1kg의 물체가 금성에서는 100kg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것이며, 또한 걸어 다니기도 매우 힘든 것이다. 항상 붉게 보이는 화성은 크기가 지구의 반 정도이고 질량은 지구의 1/10로 적다.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영하 60도로 낮으며, 심한 먼지바람으로 화성의 계절에 따라 표면 색깔이 달라진다. 현재 표면에는 물이 없다. 그러나 남극과 북극 쪽에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흰색의 극관이 있다.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100 정도로 적고 미량의 수증기가 있어 얇은 구름도 생긴다. 만약 앞으로 화성에 신흥행성을 간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징을 지닌 다음에 3가지는 꼭 둘러보아야 한다. 첫째는 올림푸스 화산이다. 이것의 높이는 26km이고, 아래 쪽은 약 700km로 지상에서 가장 큰 것의 3배 이상이다. 둘째는 마리아 대륙으로 총 길이는 약 4,000km이고, 폭은 200km, 깊이는 3~7km이다. 셋째는 지름이 약 1,800km이고, 벽 두께가 50~400km인 거대한 헬라스 분지이다. 이것은 먼 과거에 거대한 운석 충돌로 생긴 지형이다. 화성 표면에는 과거에 물이 많이 흘렀던 것으로 보이는 강과 협곡의 흔적이 많다. 지



그림 · 문병성

위성·행성 생명체에도 불성

천동설 부정된 지 500여년 佛法 지구에 국한 우주관 바뀌어야

금도 동토층을 파면 그 속에 물이 얼음 상태로 들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먼 과거에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오늘날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었는가? 우리는 화성의 과거 역사를 안다면 지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지구의 땅이나 대기가 심하게

황폐되고 오염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화성처럼 인간과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늘날 지구인은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부의 획득이란 욕심에 눈이 멀어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목성을 비롯한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대부분이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처럼 단단한 땅이 없다. 이들 행성은 그 주위에 고리를 가졌고 또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까지 태양계 탐사에서 얻은 중

요한 결과는 행성이 형성될 때 수많은 미행성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행성과 위성의 지형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태양에서 멀리 있는 위성에는 두꺼운 얼음 층을 가진다는 것,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지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만유가 생명을 지니고 불성을 가졌다면 이웃의 행성이나 위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도 불성을 지니며 불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만유의 불발은 단순한 인간의 고통과 번뇌의 극복이나 탈피에 관한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만유의 존재와 그 발전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불발의 이해는 지구를 벗어나 시공적으로 넓은 세계의 사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함이 마땅할 것이다. 지구가 500여 년의 중심이란 천동설이 부정된 지 50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불발을 지구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우주관인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10명중 8명이 가출생각

집나가고 싶은 아이들 집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전시 청소년쉼터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 충동 성향조사를 보면, 10명중 8명이 한번쯤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가출이 '문제' 청소년에 계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우리의 고정 관념을 뒤엎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어 할까? 가출 청소년 51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이유는 '집이나 학교가 싫어서' '부모나 가족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이혼과 재혼, 가출 때문' 등 부정적인 가정 환경이 가장 많았다. 가출 이유가 우호적이지 못한 양육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탓이다 보니 41.5%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나온 청소년들은 '친구나 아는 사람 자취방' 'PC방이나 만화방, 비디오방'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집 나간 청소년들이 늘고, 가출 청소년들 중 80%가 두 번 이상 가출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된다.

■부자간, 형제간, 부부간,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격하고 사랑하여 질사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유량수경>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방예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쫓아오게 마련이다. <이만문사불길총경>

임제가 보충(補講)으로 김을 매고 있을 때,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평어를 붙잡고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이 놈이 피곤한가?" 임제가 말했다. "평어를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바로 때려라. 임제가 방망이를 낚아채 한번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다. 황벽이 소리쳤다. "유나! 유나! 나를 좀 일으켜 세워다오." 유나(維那)가 다기와 부축하며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저런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곧 유나를 때렸다. 임제는 평어로 땅을 때려 말했다. "모든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일시에 산채로 들어버린다."



사실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보통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의식 때문이다. 의식의 특성은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며, 차별하고 나누어서 어느 쪽은 취하고 어느

였고, <연야심경>에서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시간이란 바뀌어가는 모양을 기억하고 저 모양과 이 모양을 구분하여 붙인 이름이다. 의식은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양들은 끊임 없이

이라고 하듯이, 의식의 본성은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마치 호수의 수면이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물결치듯이, 의식도 마음이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물결이 아무리 다양

은 움직임을 통하여 의식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마음이 생기면 만법(萬法)이란 가지 모양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서 모양 없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눈 앞에서 움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식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본성에 따라 여여(如如)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는 의식의 모든 변화하는 모양은 오히려 헛된 모양으로서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오직 모양으로만 드러나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변함없이 살아 있는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눈도 마음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야 하리라. 씩!

김태환 부산대 강사 · 철학
http://www.mindfree.net/

마음의 실상(實相)을 알지 못하면 의식은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다. 살아 있음은 곧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함이다. 마음에는 시간이 없다. 늘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법에는 공간도 없다. 늘 바로 여기 눈 앞일 뿐이다. 그러므로

죽은 버린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이 따로 있고 현재의 일이 따로 있으며 미래의 일이 따로 있고, 이곳의 일이 있으며 저곳의 일이 따로 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전에서 오온·십팔계라는 경계세계는 무상하게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의식은 곧 모양이므로 의식에는 공간과 시간이 없다. 그러나 실상(實相)은 곧 무상(無相)

하게 변화더라도 호수는 항상 그대로 이듯이, 의식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더라도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물결이라는 모양은 바람을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물의 움직임이다. 마찬가지로 의식이라는 모양은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마음

은 움직임을 통하여 의식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마음이 생기면 만법(萬法)이란 가지 모양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서 모양 없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와도 버려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동복 - 애용승복 직원일동 -

- 1. 1등반 비지 조끼 (재질: 면 50%) W160,000
- 2. 2등반 비지 (재질: 면 50%) W160,000
- 3. 3등반 비지 (재질: 면 50%) W140,000
- 4. 4등반 비지 조끼 (재질: 면 40% 고급 보온성이 높고 고급스러움) W200,000
- 5. 5등반 비지 (재질: 면 40% 고급 보온성이 높고 고급스러움) W220,000
- 6. 6등반 비지 (재질: 면 40% 고급 보온성이 높고 고급스러움) W160,000
- 7. 7등반 비지 (재질: 면 40% 고급 보온성이 높고 고급스러움) W60,000
- 8. 8등반 비지 (재질: 면 40% 고급 보온성이 높고 고급스러움) W60,000

갓두부비 **조끼·몸배**

해동승복 대구 고척역사점 대구 동부정주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촌 4동 399-1 TEL: (053)741-8131 FAX: (053)741-8132 H.P: (011)549-8130

주력 대미점 모집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 蔓蔘(黨蔘)

최상의 선비스리온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 인파선이 나왔다. ◆ 자궁 물욕이 없어졌다.
- ◆ 변비가 낫았다. ◆ 열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지 않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 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심정택 H-P 016-345-8292
- 농업계좌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대장 목재 대장 불교 건축

- 사찰 대응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 태백산 일대에서 별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 목: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 목: 9자: 1자~2자 2치
12자: 1자~2자 2치
18자: 1자~1자 8치
20자: 1자~1자 8치
24자: 1자~1자 8치
30자: 1자~1자 7치
36자: 1자~2자까지
40자: 1자~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장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사장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냉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응급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족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